



## 두 예루살렘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 년 7 월 14 일

성경은 두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의 것이고, 하나는 하늘의 것입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절대 다수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약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26** "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히브리서 12:22** "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

대부분의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와 계시는 유대인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한편,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와 계시는 전세계의 교회들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위의 예루살렘”과 “아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대에, 1967년 예루살렘 수복 이래로 땅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란에는 예루살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무슬림들이 기도를 할 때는, 성전산에 등을 돌린 채 메카를 향해 하게 됩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늘의 장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5-8** 과 **출애굽기 25:40** 참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다른 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마 16:19, 18:18**).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마 6:10).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정렬했을 때 임합니다.

지난 2,000 년간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기에,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사이에 연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가 복된 것은, 그 둘의 화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교회처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이 살고 있기에,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화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며, 또한 다윗의 후손이시기에 이 땅의 예루살렘도 재림하시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권세를 예수아께서 다 가지셨음에 감사합시다 (롬 1:4).

이 땅의 예루살렘의 과거 역사에만 중요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삭의 번제, 다윗의 도성, 솔로몬 성전, 예수아의 죽음과 부활), 장래의 예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부흥의 중심- 사 2, 종말의 전쟁- 슥 14, 예수아의 재림- 행 1:11, 천년 왕국의 수도- 겔 40-48, 미 4).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사이의 최후 연합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 때 그 둘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세 곳에서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12** "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 "

**요한계시록 21:2** "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요한계시록 21:10** □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 "

어디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임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임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됩니다 (슥 14:9).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아 안에서 연합할 것입니다 (엡 1:10). 그 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분 안에서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1,000 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쟁점이 되며, 열방의 전쟁터가 된다는 것도 어찌면 당연합니다 (슥 12:3, 12:9, 14:2, 14:12)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과 연합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타락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와 한 편이 되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 122:6). 저희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예수아의 귀환을 위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 23:39)"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역은 지금 이 순간,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의 연합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Synghyun Go*